

濠洲紀行

예방의학 전임강사 맹 광 호



김포공항

영화나 소설속에서 보는 공항의 이별은 사뭇 낭만적이고 더러는 가슴을 찢릿하게 하는 정감에 젖어볼 여유도 있긴한 막상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는 내마음은 그저 분주하기만 할 뿐이었다.

환영도 좋고 배움도 좋고 남이 오가는 공항을 열번만 다니게 되면 누구든 외국엘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며 몇번인가를 공항에 다니던 내가 벌써 두번째 외국 여행길에 오른셈이었는데 그래서 마중나온 친구들은 내가 딱 익숙해 보인다 「쵸크」를 하지만 사실은 초복과 중복을 넘어 그때 막바지에 오른듯한 8월 초순의 더위에 행동이 느려져 있을뿐 밀린 일들 하며 편찮으신 어머니를 두고 잠시라도 떠나는 내 마음은 그저 안절부절 그대로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짐사람은 한동안 사람눈을 피해 눈물페나 흘렸던 모양인데 결국 변변한 위로말 한마디도 못하고 비행기에 올라버린 나는 아직도 공항에 익숙해질려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녁 7시 내가 홍콩까지 타고갈 비행기는 동양을 잘안다는 CPA.

기창(機窓) 밖에 분주한 공항 확장공사를 보며 어서 우리 김포공항도 다른나라 공항처럼 크고 위용있는 공항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어쭙잖은 생각을 하는 사이 비행기는 어두어 오는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홍콩서 본 한국선원 (船員)

호텔 예약이 잘 안되어 공항에서 한참을 보내야 했던 나는 밤 11시가 다되어서 겨우 구룡에 있는 「그랜드」 호텔에 짐을 풀었다.

이 호텔은 72년 12월 인도를 다녀 올 때 사흘간 묵었던 곳인데 불과 7개월 전이라 그런지 짐수에서 금방 나를 알아본다.

예약이 잘못되어 애먹었다는 얘길 했더니 부쩍 늘어난 일본 관광객 때문에 방 구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

내가 이제까지 가본 곳이면 어디서나 느끼고 본 일이지만 정말 일본 사람들은 동양인—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지워진—갈지 않은 부(富)와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세계 어느 곳이고 안가는데가 없을이 만큼 퍼져있기 때문에 이들과 생김새가 비슷한 우리 한국사람 조차 일본인으로 오인 받은일은 비밀비재 하며 또 이것때문에 한국 사람끼리도 한참 눈치를 보거나 서로 일본사람인 줄 착각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적지가 않다.

년전 인도 「렐리」에서의 일이다.

어느 상점에 물건을 사리간 나는 그곳에서 예의 〈일본인 같이 생긴〉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생리적으로 일본인을 싫어하는 내가 먼저 말을 건넌리는 물론 없기 때문에 그가 나를 힐끗 쳐다보며 영어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도 불쾌한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더니 일본사람이냐고 되물어 오는게 아닌가.

그래 약간 투명스럽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중국이나 태국이나 계속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이 내가 어디서 왔기를 기대하는지는 몰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냐고 반문을 해주었더니 꽤나 멋적은듯 빙긋웃으며 『이거 한국 사람끼리……』 하며 뒷머리를 긁는게 아닌가.

그런데 좀 창피한 일이지만 어떤 때는 태도만 면발치서 봐도 한국인이 틀림 없을거라고 느껴지는 그런 촌스런 한국인을 발견할수가 있다.

〈후덥지근하다〉는 말이 가장 알맞는 그런 기분나쁜 날씨지만 다음날 내가 눈에 익은 거리를 구경하고 호텔로 돌아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일인테 식당문 가까이서 저녁을 드는 한 〈일본인 같이 생긴〉 사람을 유심히 보면서 그가 틀림없이 한국인 일거라는 확신을 갖는데는 그리 힘들지가 않았다.

손으로 잘라서 먹어도 될 빵을 「포크」와 「나이프」로 찌르자니 그 둥근빵이 몇번을 접시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었고 그때 마다 테이블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곤 하는 모양에 나는 몇번이고 낯을 붉혔고 그가 한국인일거라는 확신이 더해지자 내마음은 거의 조바심이 날 지경이었다.

그가 한국 선원이었다는 것은 그날밤에 안 일이지만 나도 남보기에 그런 우스꽝스런짓을 하고 그래서 내 나라를 욕보이게 하는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긴장을 다시 했던 기억이 난다.

「관타스」를 타고

도약(跳躍) 하는 「강가루」를 몸체며 날개에 그려 넣은 「관타스」는 호주의 유일한 국제선 비행기의 이름이다.

「안세트」와 「티에이에이」가 호주 대륙을 나르는 국내선인데 반해 이 「관타스」는 세계 어느곳이고 거의 안가는데 없는 이름있는 국제선이다.

거대한 보잉 727 속에서 나는 대뜸 다른비행기에서와는 다른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모든 승무원이 남자들이라는 점이다. 기내 「키친」에서 이것저것 시중드는 여자 승무원이 두어명 보이긴 했으나 승객 서비스는 모두 남자가 하고 있는 것이다.

옆자리에 앉은, 자칭 여행가라는 더벅머리 영

국청년이 기내(機內)를 두리번거리며 열심히 이것저것 적고 있을때 무얼그리 열심히 적느냐고 물었더니 나보고 국제선을 몇개나 타보았느냐고 되묻는다.

별로 많진 않지만 일곱가지쯤 된다고 했더니 서로 다른점들이 없더냐고 또 묻는다. 그의 수첩을 드러다보니 벌써 남자승무원만 있더라는 글을 써넣고 있었고 여행의 즐거움은 이렇게 〈다른점〉들을 찾아 내는 일이라는 의미있는 얘기를 한다.

밤참이 나오자 그 가지수며 이름까지 모두 적어 넣은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보니 그의 얘기가 재미있어 피기도 하고 실상 조금씩 다른 비행기 서비스며 승무원들의 모습이 새삼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내가 타본 국제선도 KAL, CPA, PAN AM, AIR INDIA 그리고 JAL과 QUANTAS 등 일곱가지고 각기 그나라에서 타본 국내선들까지 하면 가지수도 열가지는 넘는것 같다.

선명한 태극기며 기내(機內) 여기저기 한글로 쓴 안내판들 그리고 태극뺨지를 단 예쁜 한국 「스튜어데스」의 KAL을 타는 기분은 펜스리 자랑스럽기만 하고 동양을 누비는 그래서 기내(機內)에는 일본여자 중국여자 한국여자가 각기 자기 나라 국기무늬의 뺨지를 달고 오가는 그 온통 동양적인 냄새의 CPA— 약간 지저분한것 까지도—, 허리를 전부 들어낸 인도 「스튜어데스」들의 AIR INDIA, 밭살스럽게 일본말만 지껄이는, 그러나 서비스 만점의 일본아가씨 일색의 JAL 그리고 그 웅장한 「정보」의 내부시설만이 인상에 남는 PAN AM, 등 모두 다른 인상들을 풍겨준 기억이 난다.

물론 같은나라 비행기라 하더라도 취항선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내가 타본 이들 비행기의 인상은 대강 이런것 들이다.

워니 워니해도 400석 가까운 정보비행기로 「방콕」과 「카라치」 사이를 날랐던 72년 겨울 그 기내 영화며 「이어폰」을 들으면서 잠들수 있었던 음악들은 오래 잊혀지질 않는다.

밤 10시 홍콩서탄 「관타스」가 「시드니」 공항

을 들어선것은 8월3일 아침6시 좌륙을 서두르는 비행기 창밖으로 그림에서나 본 서양식 깃발간 지붕의 넓은 주택들이 그칠새 없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세계적 미항 (美港) 시드니

8월이면 그곳 「시드니」로는 겨울 그러나 영상 10도를 넘는 그래서 이곳의 초가을 날씨로 밖에 느껴지질 않는 그런 새벽 바람을 오히려 즐기며 마중나온 교육성의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 시내로 들어가면서 나는 이 세계적 미항도시 「시드니」를 구경할 행운에 대해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1970년 영국선장 「제임스·쿠크」가 발견하고 1978년 「필립」 선장이 죄수 883명을 데리고 장장 8개월을 항해하여 이곳에 죄수들을 위한 「캠프」를 친이래 200여년 지칠줄 모르는 개척 정신과 하느님을 섬기는 참된 마음으로 이 유형지(流刑地)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어 놓은 노력에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미국본토와 맞먹는 땅덩어리 그러나 2/3는 사람이 살수 없는 사막이거나 개척 불가능한 땅이어서 주로 동남쪽 해안을 따라 발전시킨 이 호주는 이미 연 4천불을 넘는 국민소득으로 세계 유수의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잃은 낙원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시 돌이켰다는 복락원의 얘기처럼 이 나라는 죄지은 손으로 현대의 에덴을 이룩한 역설적 현실이라고도 했지만 불과 200년 전 유칼리나무가 우거지고 캥거루가 뛰놀며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주민이 살던 이곳에 육중한 「하버·브릿지」가 서고 1억불의 「오페라 하우스」가 위용을 자랑하며 마천루 즐비한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그러나 즐비한 고층건물속에 숲이우거진 수만평의 공원들이 있고 오염될줄 모르는 수심 깊은 항만은 그대로 하나의 별장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한가지도 갖지 않은듯한 조형미의 현대식 건물을 보면 시드니는 차라리 도시가 아니고 목가적(牧歌的) 전원인듯한 느낌마저 든다.

민부와 사회적 제급의 차가 없는 나라 그래서

도시마다 밝은 웃음이 넘치고 증오도 속임수도 없는 거리를 걷는 기분이란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다만 거리며 건물 그리고 공원마다 영국에 있는 그것들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 놓음으로써 향수길은 개척민들의 고독을 읽는것 같아 잠시 들떠있던 내기분도 금세 가라앉곤 하는데 잘살아도 못살아도 내고향이 좋다는 어느 유행가사처럼 나도 예외없이 집생각이 나곤 하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구인(求人) 광고와 스트라이크

호주는 근로자들의 천국이라고들 한다. 그도 그럴것이 역사적으로는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세계에서 맨처음 실시했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미 50여년전 부터 최저 임금제를 이룩하여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일이 없다.

어떤 최저 임금법 위반에 관한 판결에 『오스트랄리아는 문명사회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산하지 않았다』라고 한 사실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수가 있다.

인력이 절대 부족한 나라이니 만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을 펴고 살수 있다. 실상 아침마다 신문을 받아보면 30페이지가 넘는 신문의 약 1/3 가량은 모두가 구인광고로 차 있는것을 볼수가 있다.

휴가도 물론 유급이므로 이기간동안 취업해서 달리 돈을 버는일이 급해져 있고 여행자가 취업하는 일도 범으로 급하고 있지만 너무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공장이고 가면 일자리를 주는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노동자 권익이 최상으로 보장되고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때때로 이들 노동자의 횡포가 일반 시민을 괴롭힐 때가 많다.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노동시간도 길다고 35시간으로 줄이자는 파업을 위시해서 임금인상 파업이 거의 매일 꼬리를물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청소부들이 파업을 일으켜 그 깨끗한 시내가 넘친 휴지통쓰레기로 하루아침에 냄새나는 시궁창이 된일이며 고기업자들이 가게문을 닫아 고기를 못먹게된 시민이 온통 아우성이난 따위 그들이 파업이 나하고 무슨상관이 있겠는가 싶지만 우체국 직원들의 2주일간의 파업으로 거진 20여일간 집에서 편지한장 못받았던 일이며 국내국제선 10여일에 걸친 파업으로 비행기로 가면 1시간도 안되는 「시드니」-「멜본」 거리를 열세시간동안 기차로 고생했던 일들 그리고 전력노조의 「스트라이크로」 저녁이면 유일하게 즐기던 「텔레비」도 못보던 일등은 「에프랑제」인 나에게도 절대적인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내 통명스런 질문에 함께 피해를 입은 그들의 대답은 태연하기만 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라다.

숲속의 왕 캥거루

틈틈히 주말이나 일과가 일찍 끝나는 날을 골라 당일 또는 1박2일쯤의 관광여행을 하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이었다. 장거리 여행이 아니고도 시내 이곳저곳에 자리한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인 자연동물원에 가면 우선 그 수많은 동물들이 큰 흥미를 불러 일으키곤 하는데 원래 동물이나 식물이름에 생소한 나는 그 진귀한 이름들조차 따라 읽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기한 느낌을 주는것은 호주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캥거루」들이다.

우선 50여가지의 종(種)을 가지고 있어 자기 조금씩 그 모양이 다른데 놀랐으나 그보다는 이들 캥거루의 모양이나 움직임에서 느끼는 해학(諧謔)과 신비스러움은 여간 큰것이 아니었다.

새끼 캥거루를 배주머니에 넣고 달리는 그 울동적인 점핑 그것은 이 세상 어느 발레리나도 흉내낼수 없는 유연성과 예술적 도약은 최대의 신비 바로 그것이었고 얼굴만 내민 새끼캥거루를 뱃속에 품고 있는 모습은 최대의 해학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신(神)의 그 진지하고도 해학에 넘친 섭리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는것이

다.

더구나 캥거루란 이름이 원주민들 말로서 (모른다)는 뜻으로 최초 이 대륙에 상륙한 「쿠크」선장이 이 신기한 동물의 이름을 원주민에게 물었더니 캥거루 (모른다)라고 대답한것을 그대로 불렀다니 이 또한 해학적이 아니겠는가?

원래 캥거루는 2.5cm밖에 안되는 적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것이 자라 2미터의 크기로 되고 9미터의 높은 도약을 하고 한시간에 약 백리를 달린다니 참으로 신기한 동물임에 틀림이 없다.

대륙을 달리는 차들은 밤중에 불시로 튀어든 캥거루를 치어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여간 조심하는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나 있어야 까마귀도 먹고 살수 있을게 아니냐는 관광배스의 운전수 아저씨 그는 이렇게 부조리하고 모순에 찬것이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냐는 철학적 사유(思惟)를 넘은 사람 같았다.

가난한 원주민

「쿠크」선장이 호주를 발견해 서구사회에 알려지긴 불과 이백여년밖에 안되지만 대강 2~3만년 전부터 이대륙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어떤 인류학자들은 이들이 남동아시아에서 건너온듯 하다고도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고 다만 이들의 생김새가 말레이반도나 인도 또는 실론의 일부 원주민과 비슷하다는것만 알려져 있다.

현재 호주에는 약 13만명의 원주민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도시지역을 피해 사막지대에 흩어져 살고 있기때문에 이들을 구경하기도 쉬운일이 아니다.

여행중에 잠깐 만나본 몇사람의 원주민에 대한 나의 인상은 펍 신비스럽다고나 할지... 무지(無知)하다고만 할수 없는 어떤 때문지 않은 천진성이 있어 나이든 어떤 원주민은 우리나라 시골에서 보는 마음씨 좋은 촌노(村老)를 연상시키기 까지 한다.

그래도 도시 가까이사는 아들 「아보리진」(원주민)들은 정부가 이들에게 베푸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사막에

서 원시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호주에 있는동안 이들의 건강문제와 복지문제는 여러번 우리들 각국에서 온 의사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잘먹고 잘살면서 불과 10만명이 조금 넘는 원주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비난이었는데 이때마다 호주정부 사람이나 일반인들은 썩 난감해 하던것을 볼수가 있었다.

다만 정부가 이들을 위해 손을 안쓰는건 아니고 연방정부에는 「아보리지」 담당장관까지 있어 이들을 찾아 마을도 이뤄주고 하지만 이들이 이를 거부하고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 얼마전 「칸베라」에서 일단의 원주민들이 좀더 좋은 땅을 달라고 외치며 데모하던 것을 T·V로 본일이 있어 호주정부의 변명이 뭔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것 같기도 했다.

이들 원주민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세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들이 자기네의 권익을 위해 맹렬히 투쟁하겠다고 하기는 하나 모르긴 해도 호주 원주민과 백인들 사이의 극심한 건강과 생활수준 차이는 좁혀질것 같지가 않다.

호주의 한국인

일단 외국에 나가면 되도록 한국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어학이 는다고해서 일부러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는듯 하지만 내가 호주에서 그곳 한국인들과 틈나는대로 만나지냈던 일들은 오래 잊을것 같지가 않으리 만큼 귀한 추억이 될것 같아 외국에나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확실한 숫자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호주에는 지금 약 5~6백명의 한국인이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시드니」에 살고 「멜본」에 약 100명 「칸베라」에 3~40명 기타 지역에 약간명씩이 있을뿐이다.

이들은 생활기반으로 보아 대강 네가지로 구분될수 있는데 첫째는 외교관이거나 우리나라의 회사 신문사에서 파견한 사람들로써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를 공적(公的)으로 대표하는 셈이기

때문에 썩 성실히 일할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기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 있는것 같지가 않았다. 더구나 외교관의경우 술한 한국인 뒷치닥거리로 오히려 적자로 사는것 같아 자주 찾아가기가 미안할 정도였던 생각이 난다.

둘째는 이민해와서 사는 소위 순수한 교포들이다.

아직 이렇다할 돈을 벌고 있는사람은 매우 드물어서 총가구의 80%정도가 자기집을 갖고 있는 호주에서 한국교민은 불과 열명도 안되는 사람이 집을 갖고 있을뿐이니 이들이 결코 넉넉히 살고 있지못하는것은 짐작이 갈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와 애국심은 대단하다. 어느 누구도 죽도록 그곳에 살겠다는 사람은 없고 모두 돈좀 벌어서 고국에 오겠다는 일념 뿐이다.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8·15기념식이 있던날 고국에 보낼 새마을 성금모금을 즉흥적으로 결의하던 교인들의 진지한 모습은 오래 잊혀지지 않는다.

셋째는 유학생들이다 현재 약50여명의 한국인이 「시드니」 「멜본」 「칸베라」에서 주로 석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특히 축산계통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

대체로 가족을 한국에 두고 혼자 와 있는 이들이 여러가지로 고생이 될것은 뻔한 이치인데 명절때라던지 주말에 이곳 교민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푸짐한 한국음식을 먹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단(一團)의 한국 노무자들에 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주로 월남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귀로(歸路)에 또는 귀국했다가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몇사람씩 방을 하나 얻어 자취를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며 썩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週) 평균 6만원 이상을 저축할수 있기 때문에 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힘드는줄 모르고 지낼뿐 아니라 때때로 십여명씩 맥주파티로 고국을 그리곤 하는 것이다.

다만 영주권이 없고 영어가 짧아 기술자로서

의 대우를 못받고 잡역으로 거의 최저 임금을 받는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외교관들과 교민들과 그리고 유학생과 노무자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도 듣고 또 고국얘기도 들려주던 일들이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라 지금도 그들과 함께 있는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것 같다.

韓·濠 축구 1차전

이번 호주 여행중 10월 28일 「시드니」에서 있었던 「문헨」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결승전인 한 호 축구의 제1차전을 구경할수 있었던것은 나에게 무엇보다 큰 행운이었다고 있을수있다.

그때 나는 「시드니」로부터 약200마일 떨어진 「칸베라」에 있었으므로 이 구경을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으나 대사관에서 특별히 교통편을 할애 해줌으로써 이 행운을 놓치지 않을수가 있었다.

예당초 이 1차전은 호주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것이 거의 확실시 될만큼 신문마다 한국축구를 대단치 않게 보던 터이고 게다가 직전에 서 울서 있었던 박대통령컵 쟁탈축구에서 비마한데 한국이 짐으로써 호주사람들에게 별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적수(敵手)가 못된다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사실 먼길을 응원가는 나도 마음이 썩 유쾌한 편은 못되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날은 「칸베라」에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나마의 기회도 놓치는가 했더니 「시드니」는 오전중 이미 비가 개여있어 경기는 제대로 시작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방망이질이었다.

그러나 경기는 갈수록 한국팀이 우세해서 200여명의 교포들은 거의 기쁨에 악을 쓰다시피 했고 ○대○으로 경기가 끝났을때 나는 완전히 목이 쉬어서 얘기도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

해늦게 「시드니」를 떠나 「칸베라」에 왔을때는 자정이 넘었고 다음날 나는 각국에서 온 일행들로부터 인사받기에 분주했던 그 즐거움 또한 잊을수가 없다.

귀 로 (歸路)

3개월여의 〈병원및 보건행정〉에 관한 국제교육훈련을 마친것은 11월2일 「칸베라」에서였다. 「시드니」의 「뉴·사우스웰즈」 대학과 「시드니」 대학 그리고 보건요원 훈련센터에서의 짝 짜인 두달 그리고 「멜본」 「모나쉬」 대학과 각 병원에서의 실무교육 한달과 「칸베라」 보건성에서의 일주일간 평가회 이 모든것은 나로하여금 일반 여행자로서의 여유와 낭만을 불허할이 만큼 정확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때로는 일주일을 온통 방에서 책과 씨름을 해야 하는 때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보고 느끼지 않고는 못배길 그런 여행 특유의 흥분을 즐기는데 인색하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할수 없었던것 같다. 낮에 시간이 없었으면 밤에 주중(週中)에 바빴으면 주말에 나는 많은곳과 많은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것 같다.

웬지 호주는 다시 오기 어려운곳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문명의 극(極)이 갖는 아름다운것과 추한것을 보고 느낄수 있다는 것은 나의 성장에 너무도 귀한것이 될것이라는 확신에서였던 것이다.

분명한것은 문명사회 그 풍부한 여유 (경제적)라던지 편리하다던지 하는것이 인간이 바라는 궁극적 행복일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가 문명화해 간다는것은 다분히 그때 그때 인간이 필요로하는 일이 빠르게 또는 늦게 이뤄져가는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을뿐 아니라 그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일이란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크게 의존하게 마련이니까 그것은 객관적이기 보다 주관적인 것이고 따라서 자기것에 대한 애착에서 부터 그 필요성을 키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다시 열시간 가까운 「시드니」로부터 홍콩까지의 비행. 그리고 또 서울을 향해 날아오는 내 귀로에는 그리나 어떤 사색도 짐을 향해 달음질치는 만음을 대신할수는 없었다.